

한유총, 교육당국 발목 잡았다 비판 쏟아져

2002년 단설유치원 신설 반대 시작... 변변히 집단행동 유아교육법 제정 뒤 10년간 한유총 입김 더욱 강해져 누리과정 도입 이후 투명성 강화 정책에 극렬히 반대 신학용 전 의원에 3360만원 뇌물성 후원금 유죄 확정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에 대해 학부모들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16년간 변변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당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3분의 2가 가입하고 있는 거대 이익단체인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창립한 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운동(2002년)을 전개하는 등 굵직한 유아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정치권 로비를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거나 중단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한유총이 처음으로 집단행동을 시작한 시기는 2002년이다. 단설유치원 신설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기반한 반발이었지만, 당시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을 택했다. 이후 단설유치원 설립은 각 시도별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때에는 한유총이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영유아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이나를 두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 분야 단체와 정면 대치했으며, 표를 내세워 정치권을 압박했다. 결국 유아교육법 제정을 관철시킨 이후 자신감을 얻은 한유총의 입김은 지난 10여년 간 더 강해졌다.

그러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 집단행동은 점점 거세졌다. 국고지 원금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특히 유치원 회계 감사를 학교법인 수준으로 강화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극렬히 반대했다. 규칙 개정 및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 자리마다 찾아와 집단 시위를 벌이면서 방해했다. 이 때문에 당초 2016년 가을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무회계규칙은 1년이 미뤄져 지난해 9월에야 겨우 시행됐다. 시행시기와 맞물려 한유총의 집단행

동은 극에 달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증액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교육부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한유총은 집단 휴업을 철회했다가 다시 예고하기를 반복하면서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에도 댓글 조작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처럼 한유총이 건건마다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의 공생관계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나 지역 교육청 등과 관계를 형성하며 입법 로비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유총은 지난 2013년 신학용 전 의원에 사립유치원 특례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3360만원의 뇌물성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 전 의원은 지난해 실형이 확정됐고, 당시 한유총 회장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재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에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유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를 파헤쳐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금전이 오가는 수준의 로비인지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경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분야의 거대한 이익단체가 된 한유총이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 실시간으로 회계현황을 공개한다면 명목이 불분명한 지출이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로 사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유치원비를 한유총 회비로 지출했다가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바 있다. 교육당국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유치원 인망에서 학부모들이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사임 후 출범한 비대위는 10일 국공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에 협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태 원인은 여전히 교육당국에 떠넘기고 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영 이익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서재빈 학생 한국자원식물학회 '우수발표상'

학생 신분으로 연구 성과 이례적... 미래 연구 기대

전북대학교 서재빈 학생(환경대 한약자원학과 4년)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한국자원식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서재빈 학생은 이번 학회에서 '탁트바실러스 부크레리 균주의 생존능과 부착능을 증강시키는 서리태의 효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서재빈 학생은 프리바이오티스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를 탐색하던 중 서리태의 효능을 확인하고 검증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신바이오틱스 개발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성과가 특별한 것은 이례적으로 학생이 우수 연구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점이다. 이 학생은 3학년 2학기부터 실험실 생활을 시작해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1년여 만에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연구자로서의 장래가 촉망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사제동행 DMZ 두벅이 평화순례'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중학교 교사와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DMZ 두벅이 평화순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례는 두벅이 동리 중심으로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라는 새로운 시작에 맞춰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사제가 동행해 DMZ(비무장지대)를 걸으며 분단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가자들은 임진각을 비롯한 파주, 철원 일대를 돌며 분단과 평화, 생태를 체험하고 국경선 평화학교의

협조를 얻어 민통선 안을 걷게 된다. 문규현 신부의 '평화로 함께 하는 역사 마주하기', 정지석 목사의 '학교 밖 평화교육으로 통일을 꿈꾸다' 특강도 이어진다.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학교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2019년 교육지원청 사제동행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화 자료로 쓰일 계획이며 향후 타시도 교육청에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 평화롭게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평화교육 순례프로그램 모델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교감 직무연수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감 연수를 갖는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날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 교감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초등학교 교감 20명, 중등학교 교감 20명 등 도내 초·중등학교 교감 40여명이 참여한다.

연수 첫날에는 학교안 평화교육의 실제(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노동인

권과 학교교육(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둘째날에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전경과 여성인권(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또 연수 마지막날에는 촛불혁명과 인권(박래군 4·16재단 공동대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정은성 기자

군산서초, 가족과 함께 떠나는 숲길동행 '호응' ... '모두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요'

군산서초등학교(교장 이 일령)는 2018 가족과 함께 떠나는 숲길동행(밤줍기 및 공산성 탐방)을 3년 연속 실시하고 있다.

군산서초 숲길동행은 학생, 학부모, 교사 중 희망자에 한해서 매년 그 지역의 우수한 문화시설 및 체험 장소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급원은 농장에 가서 알밤 줍기와 공주의 무녕왕릉, 공산성을 다녀왔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알밤을 발로 밟고 비벼서 깨내 담는 즐거움을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참여했다. 특히 학부모는 "모처럼 옛 동심으로 돌아가 알밤을 신나게 주웠고 가족 네 명이 모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며 감사해 했다.

한편, 이일령 교장은 이번 숲길동행 통하여 군산서초 모든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군산서초 학생과 지역발전이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서초등학교가 '2018 가족과 함께 떠나는 숲길동행(밤줍기 및 공산성 탐방)'을 3년 연속 실시하고 있다.

축! 전주매일 창간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러 행을 책임집니다!





장수군청

검색